

심청전

때: 옛날

곳: 시골 동네, 용궁, 대궐

나오는 사람들: 학생

해설자: 남학생. 한복 입고 갓 쓰고 장죽을 들고 있다. 두루마기를 입고 긴 수염을 달았음.

심봉사: 여기 저기 기운 한복을 입고 있다.

심청1: 여기 저기 기운 한복을 입고 있다.

심청2: 화려한 한복에 당의까지 입고 있다.

동네 사람들: 귀덕 어멈, 동네 사람1, 2, 3.

선인들: 1, 2, 3.

용왕: 곤룡포를 입고 있다.

용왕의 신하들: 각 종 물고기로 분장을 한다.

임금님: 곤룡포를 입고 있다.

신하들: 1.2.3.

봉사: 1,2,3.

합창반: 모두 한복을 입는다.

노래는 동요에 가사를 붙여서 부른다.

제 1막

해설: 옛날 옛적 도화동이라는 마을에 심학규라는 앞 못 보는 장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청이라는 귀여운 딸을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심봉사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동냥젓을 얻어 먹었습니다. 비록 동냥젓을 얻어 먹었으나 심청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어느덧 심청이가 열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심봉사는 심청이를 마중나갔는 데 냇물을 건너가다가 밭을 헛 디디어 그만 다리위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스님이 심봉사를 개천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무대 왼쪽)

스님: 이거 큰 일날뻔 했습니다.

공양미 삼백석만 부처님께 바치시면 눈을 뜰 수 있을텐데

심봉사: 스님, 제 눈만 뜰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공양미 삼백석을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스님: 부처님께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서 말씀하세요.

해설: 눈을 뜰 수 있다는 약속에 공양미 삼백석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공양미 삼백석을 마련 할 길이 없는 심봉사는 그저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무대 오른 쪽으로 문소리가 나며 심청이 들어 온다.)

심청: 아버지 오늘은 일거리가 많아서 조금 늦었어요. 시장하셨지요? 금방 저녁 진지 차려드릴게요.

(심청이 나가서 밥상을 들고 들어 온다. 심봉사는 밥을 먹지 않는다.)

심청: 아버지 왜 진지를 잡수시지 않아요?

심봉사: 아, 아니다. 너는 몰라도 된다.

심청: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심봉사: 글썸, 내가 망령이 들었나 보다. 애야, 이 일을 어찌면 좋으냐?

심청: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심봉사: 글썄 화주승이 공양미 삼백 석을 부처님께 시주하면 눈을
뜬다기에 그만---

심청: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눈만 뜰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든 공양미 삼
백 석을 마련해 보겠어요.

해설: 다음 날부터 심청은 뒤뜰에 단을 만들어 놓고 밤마다 맑은
물을 떠다 놓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심청: 하늘이시여, 불쌍하신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이
딸의 소원입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 주
세요.

노래: 하늘이시여, 불쌍한 우리 아버지 눈 뜨게 하소서
부처님께 바칠 공양미 삼백 석 마련하게 하소서
하늘이시여, 불쌍한 우리 아버지 눈 뜨게 하소서

(귀덕 어멈이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 심청이 등장한다.)

귀덕 어멈: 세상에 별 일도 다 많구나. 글썄 처녀를 사겠다고 다
니는 사람들이 있으니 알 수가 없구나.

심청: 네? 처녀를 산다구요? 누가요?

귀덕 어멈: 배를 타고 중국으로 장사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데
처녀를 바다에 바치면 장사가 잘되고 험한 파도에도 무
사하다는구나.

심청: 그래요? 아주머니, 제가 그 사람들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귀덕 어멈: 아니, 네가 무슨 일로 그 사람들을 만나겠다는 거냐?

심청: 부탁이에요. 아주머니.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귀덕 어멈: 그럼, 지금가서 데리고 올게. (귀덕 어멈이 퇴장한다.)

해설: 심청의 이야기를 들은 뱃사람들은 당장 공양미 삼백석을 몽
은사로 보내 주었습니다. 심청은 뱃사람들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
짓말을 하였습니다.

심청: 아버지, 기뻐 하세요. 오늘 공양미 삼백석을 몽은사로 보냈습니다.

심봉사: 아니 뭐라고?

심청: 아버지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하고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심봉사: 그런데 갑자기 쌀 삼백석이 어디에서 났단 말이나?

심청: 아버지, 그 쌀은 제가 일하는 장승상 댁에서 보내 주셨어요. 그 대신 제가 그 댁에 수양 딸로 가기로 했어요.

심봉사: 부처님께 거짓말은 안 하게 되었다만 앞으로는 누굴 믿고 살아야 한단 말이나?

너와 떨어져 살 일을 생각하면 부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나을 뻔 했나보다.

해설: 마침내 심청이가 뱃사람들과 떠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심청이는 아버지가 사철 입으실 옷과 버선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갓도 새로 사서 걸어 놓았습니다.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 옵니다.

노래: 닭아 닭아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나 죽는 것은 서럽지 않으나

우리 아버지 어찌 두고 간단말인가

(심청 밥상을 들고 들어 온다)

심봉사: 오늘은 아침 밥이 조금 이른 것 같구나.

심청: 예, 아버지 진지 많이 잡수세요.

심봉사: 오냐, 오늘은 반찬이 아주 좋구나. 뉘 집 제사 지냈느냐?

심청: 아니에요. 아버지, 저--- 오늘---

심봉사: 오늘 일이 바빠서 일찍 간다는 거냐?

심청: 아버지! (홀쩍 홀쩍 운다)

심봉사: 아가, 너 감기 들었나보다. 콧물 닦아라 응. 그리고 간밤

의 꿈에 네가 꽃가마를 타고 갔는데 오늘 장 승상 댁에

서 데리러 오는 것 아니냐?

심청: (혼자말로) 틀림없이 내가 죽을 꿈이로구나.

(문두드리는 소리)

뱃사람: 아가씨 ! 빨리 나오시오. 시간이 없소

심봉사: 이게 무슨 소리냐? 장승상 댁에서 너를 데릴러 왔단 말이
냐?

심청: 아버지!

심봉사: 오냐, 내 걱정은 말고 네 몸 건강하게 잘 있으면 더 바랄
것 없다.

심청: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영영 떠
나가게 되었습니다.

심봉사: 영영 떠나다니. 장승상 댁에 가더라도 간혹 만날 수도 있
지 않느냐?

심청: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공양미 삼백석을 누가 거져 주겠습
니까? 뱃사람들에게 몸을 팔아 인당수 바닷물에 빠져 죽
기로 되었는데 오늘이 떠나가는 날입니다.

심봉사: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한단 말이
냐? 나를 팔아 너를 사면 몰라도 너를 팔아 내 눈을 사
다니---

네가 죽고 내가 어찌 혼자 산단 말이냐.

아무데도 못 간다. 못가! 이 놈들, 이 나쁜 놈들.

청아, 나하고 같이 가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막이 내린다.)

해설: 아버지와 작별을 하고 심청은 배를 탔습니다. 심청을 태운
배는 어느덧 바람과 파도가 심하게 치는 인당수에 닿았
습니다.

노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늘님께 비나이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 주세요.

제 소원을 들어 주세요.

우리 아버지 눈만 뜨게 해 주세요.

2막

해설: 심청이 바닷속으로 뛰어 들자 파도는 잔잔해 졌습니다. 바닷속의 왕이신 용왕께서 심청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심청은 용왕 앞으로 갔습니다. 용왕은 심청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닷속: 바위사이에 해초가 있다. 물고기들이 나와서 춤을 춘다)

용왕: 심청아, 나는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다. 네가 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몸을 바친 것을 알고 있느니라.
자, 심청이를 연꽃에 태워 다시 세상으로 내 보내 아버지께 효도하도록 하여라.

해설: 심청이는 연꽃 속에 실려 바다에 빠졌던 인당수에 떠 있었습니다.

이 연꽃을 중국에서 장사를 하고 돌아 오던 뱃사람들이 발견하고 건져서 임금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3막

(대궐 앞 마당에 꽃이 피어 있고 나무 들이 많이 있다.

뱃사람들이 연꽃을 밀고 들어와 임금님께 갖다 바치고 퇴장한다.

임금님이 연꽃 앞으로 가는 데 연꽃 속에서 아름다운 심청이가 나온다.)

임금: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어떻게 연꽃 속에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냐?

심청: 임금님, 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전에 바다에 빠졌는데 용왕님께서 저를 연꽃 속에 넣으셔서 세상으로 내 보내 주셨습니다.

제가 임금님을 놀라게 해 드렸다면 용서해 주세요.

임금: 어찌 이리도 의젓할까? 왕후가 될 사람을 용왕님이 보내주셨구나.

(막이 내린다.)

해설: 이리하여 심청은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된 심청은 매일 아버지 생각만 하였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이 아시고 온 나라의 장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심청은 매일 같이 장님잔치에 나가 보았으나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님들을 위해 잔치를 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거지 장님 한사람이 힘없이 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심봉사였습니다.

(심청이 심봉사 앞으로 뛰어간다)

심청: 아버지!

심봉사: 누구십니까?

나는 딸이 없습니다. 내 딸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심청: 아버지, 제가 청이에요. 바다에 빠져 죽은 청이에요.

아버지, 제 목소리를 들어 보세요. 저를 만져 보세요. 제가

인당수에서 살아서 지금은 왕후가 되었습니다.

심봉사: 아니! 이게 웬 말이냐?

내 딸 청이가 살아 있다니, 꿈이냐? 생시냐?

심청: 아버지,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딸 청이에요.

심봉사: 어디보자. 내 딸 청아! 청아!

심청: 아버지! 제 얼굴이 보이십니까?

심봉사: 청아, 얼굴이 보인다. 네 얼굴이 보인다. 청아.

심청: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노래: 하늘도 감동하여 도와 주셨네

눈이 먼 아버지 눈을 뜨셨네

아아 지극한 효녀 심청

아아 가극한 효녀 심청

누구나 본 받을 효녀 심청

임금: 여봐라!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로다. 우리 나라에 이런 효

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고 자랑이로다

이 기쁨을 온 나라에 알리고 큰 잔치를 베풀도록 하라.

(무용반이 나와서 화관무를 춘다)

화관무가 끝나면 막이 내린다.